

“책과 사람이 만드는 행복한 삶, 많은 사람과 공유해요”



전주시 독서학습동아리 '슬기로운 讀개비' 경북 경주·포항 벤치마킹

전주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 독서학습동아리 '슬기로운 讀개비'는 23일과 24일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벤치마킹을 했다.

'슬기로운 讀개비'는 전주시가 직원들의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 창의적인 직무역량 강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책 읽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운영하는 '스마트 독서학습동아리'에 가입된 독서동아리로 전주시립도서관 사서 4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회원들은 책을 다루는 사서가 아닌 '책을 읽는 사서'로서 더욱 주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책 읽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에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자 매월 1권의 책을 선정해 독서토론, 벤치마킹, 책나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번 벤치마킹에서 경주의 게스트하우스 겸 북카페로써 여행자와 지역민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이색공간인 '북홀'과 포항의 랜드마크이자 포항시민들에게 도시를 품는 동지로 일컬어지는 복합문화센터 '포은중앙도서관'을 방문했다.

앞서 이 동아리는 3월 중 일본에서 1년 간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한 지방공공시설 디자인과 관련한 '직적자본론(마사다 무네아키 저)'을 선정해 '동문서점'에서 독서토론을 진행해 왔다.

오는 4월부터는 △어른까지도 인생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동화 '내가 함께 있을게(볼프 에를브루흐 저)' △아름답고 기발한 도서관을 소개한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조금주 저)'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100만번 산 고양이(사노요코 저)' 등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한편 전국 우수도서관과 문화콘텐츠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배울 계획이다.

주정화 동아리 대표는 "앞으로도 '슬기로운 讀개비' 회원들은 독서토론은 물론 사서로서 직접 읽은 추천도서 목록을 선정 배부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책나눔' 행사 등을 통해 책과 사람이 만드는 행복한 삶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슬기로운 독서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 독서학습동아리 '슬기로운 讀개비'는 23일과 24일 경주의 게스트하우스 겸 북카페로써 여행자와 지역민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이색공간인 '북홀'과 포항의 랜드마크이자 포항시민들에게 도시를 품는 동지로 일컬어지는 복합문화센터 '포은중앙도서관'을 방문했다.

순창 풍산면, 플럼코트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순창군 풍산면 주민들이 플럼코트 참외를 신소득 작물로 키우기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풍산면 블루베리 작목반 40여명은 나주에 있는 플럼코트 재배농가와 참외 농가를 찾아 재배경영 노하우와 경영기법을 배웠다.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자두와 살구를 1대1로 교배해 맛과 향이 뛰어난 최신품종으로, 티파니·사이니·심포니 등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풍산면은 기후조건 등을 생육환경 등을 검토해 농민들에게 소개하는 등 육성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원원 기자



김제시 백구면, 민·관 합동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은 본격적인 상춘시즌을 맞아 백구면 일대의 깨끗함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26일 국토 26호선 구간에서 2018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회장 송연순)와 면사무소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들은 해당 구간에서 겨우내 묵은 각종 쓰레기와 장기간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 숨은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고 도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깨끗하고 활기찬 백구면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에 발 벗고 나선 새마을부녀회는 평소 저소득층 김장 담아주기, 김제사랑장학금 기탁,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참여, 청소년 선도 캠페인 참여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백구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단체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군,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성료

도내 태권도 꿈나무들의 한마당 잔치인 '제38회 전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라북도태권도협회와 고창군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북의 태권도 꿈나무 선수와 가족 1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초·중·고등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된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1위 입상자에게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전북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 출전자격이 부여되고, 고등부 입상자는 제90회 전국체전 전북대표선수 선발 랭킹포인트가 부여되어 태권도 선수들의 승부욕을 고취시켰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國技)로서 세계인들이 수련하는 자랑스런 우리고유의 무술이다"라며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대회에 참가한 선수 모두가 점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시설공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스포츠 꿈나무 발굴 업무협약

전주시설공공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전주시 빈곤 아동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빈곤 아동들을 선정해 승마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 점진적으로 프로그램 확대하여 다양한 스포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전주시는 사람의 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써 본 협약식을 계기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동하 본부장은 "전주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채규남 기자

군산시 성산면, 직접 만든 단팻빵 400개 지역 이웃에 전달

군산시 성산면은 26일 대한적십자전북지사 군산 희망나눔봉사센터(미원동 소재)에서 직접 빵을 만들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성산면사무소 직원들이 참가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밀가루 반죽부터 포장작업까지 마무리한 후 직접 만든 단팻빵 400개를 관내 저소득층 및 독거어르신 등에게 전달했다.

서동석 성산면장은 "정성과 마음을 담아 만든 빵을 전달하면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숭선수범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구독 · 광고문의 288-9700